

1부 ... 승리의 때에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인생에서 승리의 자리에 서더라도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양육하십시오.

부하고 강하지만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힘과 권리를 자신만을 위해 주장하지 않는 멋진 자녀로 양육하십시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늘 배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일은 부모가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런 모범을 보임으로 가능합니다.

1장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이사야 41:10-16)

Build me a son, O Lord, who will be strong enough to know when he is weak.

분별: 어떤 환경에 처하든 자신의 본분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

무엇을 구하는가?

세상에 우리 자신보다 귀한 존재가 있다면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를 위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신다면 당신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과연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를 위해 기도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거의 없겠지만 뜻밖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는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당신은 과연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위해 과연 무엇을 기도하는가?'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들의 건강과 공부 그리고 출세와 형통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론 그와 같은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들이 그와 같은 것들만으로 충분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녀들을 위해서조차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그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맥아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은 참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맥아더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쓴 기도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자유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제가 개인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유인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좋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죄를 지어 타락한 인간이지만 그 인격을 존중하신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 3:20).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정도 되시면 그냥 들어오고 싶으실 때 언제나 “나다” 하고 들어오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꼭 우리의 의사를 물으시고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시며, 우리가 문을 열어야만 비로소 들어오시겠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해주셨다는 것이 너무 좋고, 타락한 죄인이지만 언제나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것 또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저의 인격과 자유를 건드리는 것이 가장 싫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게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강요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싫습니다. 하나님도 저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는데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대하는 것을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싸웁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남의 인격과 자유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항상 자녀의 인격도 존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영원한 자유인,

'참자유인'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자유', 이 얼마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권과 인격 그리고 자유에 폭력을 가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벌을 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인권과 자유를 무시하고 폭력을 가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유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별력' 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사람은 모든 결정과 판단을 스스로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결정과 판단이 옳으나 그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판단과 옳은 결정을 위해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판단과 결정을 스스로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올바른 판단과 옳은 결정을 내리도록 옆에서 도와주시지만 우리 스스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언제나 기다려주십니다. 자유인이란 모든 판단과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자신보다 더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바르고 정확한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맥아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에 바로 그와 같은 간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하나님께 자신의 자녀가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충성보다 분별력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 자유인에게 꼭 필요한 분별력을 허락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인간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당신의 영은 분별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면서부터 그 소중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영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인간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 5:2) 헛된 일을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열심히 헛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최선을 다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일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은 일이며 무엇이 자신에게 더 좋은 일인가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별력’입니다.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전 4:2)의 헬라어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의 초두가 ‘그리고’ 라는 접속사에 의해 연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즉,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충성’ 하나만을 강조하려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앞 구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전 4:1)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사도 바울은 충성을 귀히 여겼지만 ‘충성’ 보다 앞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것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충성보다도 영적 분별력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명분으로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다메섹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 그

누구보다도 충성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엉뚱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 바울은 충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분별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별력 없이 충성하면 하나님을 위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엉뚱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분별력'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에게 무엇보다 먼저 지혜를 주세요. 바른 영적 분별력을 주세요. 그리하여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와 같은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게 해주세요.”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 이렇게 키워라 ...

1. 자녀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건강, 성적, 출세, 형통을 위해 기도한다. 물론 그와 같은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은 것들만으로 충분히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2. 자녀가 자유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하라.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해주셨다. 그러므로 땅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부모는 하나님이 그러하시듯이 자녀의 인격과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또한 자녀가 자신의 인격과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교육하라. 자신의 인격과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남의 인격과 자유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하라.

3. 자녀가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성하도록 교육하라.

자유인은 모든 판단과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바른 분별력이 필요하다.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은 일이며 무엇이 자신에게 유익한 일인가를 분별하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부모 된 자들은 자녀가 바른 분별력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성하도록 기도해야 한다.